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 김순진(요셉) • 보좌 신부 : 김찬미(가비노)
사목회장 : 신유승(가밀로) 267-879-2103 • 연령회장 : 박범수(요셉) 267-210-7336

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00
Saturday	PM 8:00	축성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AM 11:30 (Sunday School)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청년 미사)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오늘의 전례

입당 성가 : 130 예수 부활하셨네

제 1독서 : 사도행전 10,34ㄱ.37ㄴ-43

화 답 송 :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제 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3,1-4

부 속 가 :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 음 : 요한 20,1-9

봉헌성가 :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영성체송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체성가 : 139 알렐루야

파견성가 :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신앙의 신비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받으소서.

전례 봉사자

일 시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성체 분배	구역 봉사
4월 17일 7시 **주님 부활 대축일 10시**	박재현 변용천	김용식 김종혁	신미숙 박금숙	오채빈 최세레나 이기남 전아린 남영인 최성현	김완수 김현직 김석현	사목회
4월 19일(화) 8시	김성호	김금숙		공수환 최세레나 공태환 최엔젤라		
4월 21일(목) 8시	이현숙	이형숙		남영인 임진이 권서현 권서진		
4월 23일(토) 8시	김정희	이순철	한형숙	인 준 인서윤 최성현 최성준		
4월 24일(주일) 7시 **10시** **11시 30분**	김도호 이현숙	이진용 장현기	노원진 박순완	정현아 임진이 오채빈 이세희 이재준 권서현 이기남 이동근		North Penn

2022년 부활 메세지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요한 11,43)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부활의 은총과 생명이 온 세상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특별히 우리와 한 형제인 북한의 형제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아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연의 생명이 움터 나오는 봄과 함께 부활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우리의 삶이 바야흐로 새로운 생명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정점을 지나 진정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움츠려 들었던 우리도 이제 그만 각자의 '동굴'에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라자로의 소생을 다시 보면, 이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1코린 15,13)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됐던 기간에는 미사도 직접 참례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평화방송 미사나 인터넷 방송 미사가 그나마 많은 위로를 주는 통로의 역할을 고맙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의 '동굴'에 '안전하게' 또 더러는 '안일하게' 방송 미사에 안주하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불러내시는 듯합니다. 신앙은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이고, 방송으로는 미사의 성사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으로 미사를 시청하는 것은 실제로 미사 참례하는 것은 아니기에 완전한 미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만, 다만 몸이 불편하셔서 부득이 성당에 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고마운 도구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던 이를 칭칭 감싸고 있던 천'을 풀어 주어 우리를 자유롭게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알게 모르게 더 고착되어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천, 이웃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꺼리는 '두려움'의 천, 편안함에 길들여진 '안일함'의 천들을 벗어버리고, 하느님 안에서 참 생명의 자유로움으로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새봄, 새싹이 돋는 놀라운 생명의 봄에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부르심을 들으며, 자연의 위대함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 선물을 보게 됩니다. 봄의 생명력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절에 저는 세 가지 작은 묵상점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과 회복력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는 따뜻한 감수성을 다시 회복해 나갑시다. 뺨을 스치는 봄바람에도 까르르 웃을 수 있었던 그 약동하는 생명의 감수성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무덤덤과 무표정, 무관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함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갑시다.

이 생명의 봄, 부활한 생명의 계절을 통과하며, 참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곽곽해졌을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하는 궁극의 목적을 잃은 채 의미 없는 분주함에 우리의 삶 전체가 매몰되지는 맙시다. 이 봄의 생명력이 일깨우는, 예수님 부활의 선물인 생명, 그 근원이자 우리가 결국 돌아갈 궁극 목적지인 하느님을 다시금 만나는 시간이 되어 봅시다.

우리가 받은 생명을 감사하며 기쁘게 하느님께 사랑의 열매를 바쳐드리기로 결심해 봅시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으로 '까르페 디엠'(carpe diem, '오늘을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이라는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참으로 '현재를 즐기는 모습'은 그저 '젊음을 엔조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은 '하느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을 때, 현재를 진정으로 즐기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연의 생명력 안에 지금 우리에게도 선물해 주시는 참 생명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마침내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다시 주십니다. 이 봄의 생동하는 생명력 안에 담긴 하느님 생명의 선물을 감사하며, 우리 각자의 힘든 삶 안에도 속 깊이 담겨있는 생명의 선물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2년 이상의 코로나 사태로 어려우신 분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잘 챙겨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서로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를 평화의 성모님께 전구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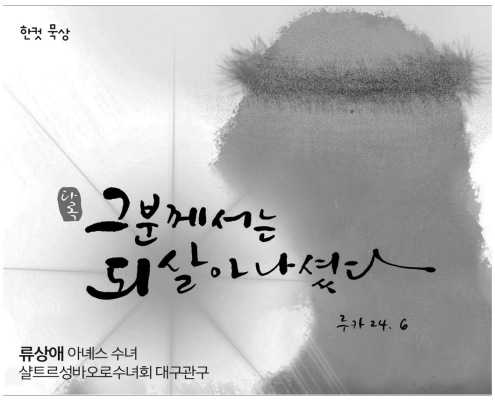
■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2,693.-　　**특별헌금** $1,005-

감사헌금 $1,750.-(이세라 $300.- 익명 $100.- 홍정환 $100.- Fran $100.- 익명 $1,050.- 익명 $100.-)

교 무 금 $5.790.-

김창호(4-6)	박정화(4)	이평일(1-5)	최영자(4)
박상필(3-4)	공상권(5)	강진섭(1-4)	양은석(4-6)
강호신(4-6)	김완수(4)	허삼욱(4-9)	오승준(8-9)
박오섭(4-7)	김동영(3)	박성신(5-6)	정근식(4-5)
강대식(1-4)	박경선(4)	조원덕(1-2)	박은배(3-4)
강선순(3-4)	이동수(4)	박한구(1-4)	변선균(1-4)
승경숙(4)			



미사 지향

오전 7시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연	백영기(안드레아)	가족	영원한 안식
	김옥동(루시아)	박영남	
	이용남	이용은 박순숙	
	전재석 김봉순(모니카) 전상대	전민희	
	정연석(안드레아)	가족	
	민춘자	민병수	
	조영우(브르노)		
	조종국(요셉) 성정모 김기임(마리아) 이은자(마리아)	로사	
	최복암 최요셉 박안진 박데레사	최농자	
생	임은정	엄마	주님 축복 건강
	김광배(요한)	김완수	건강 회복
	이상인(브르노)	강남운	건강 평화
	김한봉(방지거) 가규희(데레사)	이철규	부활의 은총 기쁨 늘 함께 하길 기원
	도대건(안드레아) 이진기(어거스틴) 이민기(알퐁소) 이상원(레베카)	김정애	
	박미카엘 가정	권미리암	부활 축하
	임영옥(아네스)가정 강명숙(예레미아) 가정	임데레사	주님 축복 영육간 건강
	강성수 강명숙 가정	로사	
	조미카엘 가정		
	김찬미(가비노) 신부님		
	조현진(안젤라)		
	최영숙(데레사)	가족	영육간 건강
		윤마리아	축생일 건강

오전 10시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연	김종덕(마리아)		영원한 안식
	김정용(레안데르)	가족	
	안병록(바르나바)	이영자	
	이정언(베드로)	허수원	
	이병희(요셉)	김요안나 가정	
	유순흥(마리아)		
	Cindy Jordan	나선호	
	이흥근 조성희	이춘섭	
	이창성(요셉)	가족	
	진기순	가족	
	소재욱 한사교	가족들	
	김유정 박맹조	홍루시아	
	나길자	이모	
	최정은(모니카)	가족	
	이근상 이규섭(마르코)	이안나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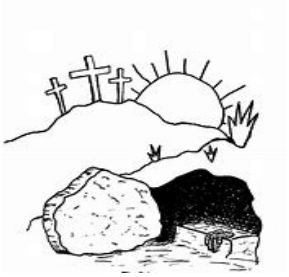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연	이준영(멜키올)	가족	영원한 안식
	김창진(미카엘) 박계득 김기형(요셉) 김국진	주민정	
	오정환 오수만	김안젤라	
	오섭석(안나) 김종화		
	김갑화(아녜스) 김보필(요나단)	김도호	
	신택현(암브로시오) 이태경(글라라) 김용관(미카엘) 송현희(미카엘라) 김대중(로배르또) 김승중(라우렌시오) 김화중(에드워드)	김형중	
	김천수 김용중(미카엘) 김영란(도미니카)	가족	
	김종덕(마리아) 김용민(요셉)	연령회	
	조영우(브르노)	기우종	
	한진수(그레고리오)	가족	
생	최천웅(안토니오) 서춘자(율리안나)	가족	주님 자비 은총 축복
	김성호(이냐시오)가정 송다리아 가정	장디오니시오	가정 축복
	정귀자(아가다)	이종순	주님 축복 은총 영육간 건강
	최신일(안토니오)		
	김영훈(라파엘)	나선호	
	정귀자(아가다)	가리티나	
	프란치스코 푸랭클린 박정화(율리안나)		
	방남분(아가다) 정귀자(아가다)	박경선	
	박제임스	권미리암	
	주수광(루치오)가정 남옥희(수산나) 이인섭(이나)가정	주민정	
	이영호(제임스)	고모	영육간 건강 주님 축복 은총
	김광배(요한) 김태순(마리아)	자녀들	
	복사단 인준(조나단) 김진성(미카엘)	복사자모회	
	최영자(엘리사벳) 권오경(미리암) 정인혜(모니카) 나연숙(데레사)	묵주기도의 모후	
	최충식(바오로) 윤백자(젬마)	조인선	
	김종혁(프레데릭)가정		
	이복순(아가다)가정 안상영(아네스)가정	임데레사	
	윤을순(베로니카) 한기옥(세실리아)	정명임	주님의 자비 축복
	길모	이복순	축 결혼 축복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 납부는 가장 먼저,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합시다!

알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오며 본당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임신부 김순진 요셉
보좌신부 김찬미 가비노
사목회장 신유승 가밀로



♡ 금주의 영명 축일 – 축하합니다!

4월 20일	**빈첸시오** : 박철희
4월 21일	**안셀모** : 최한솔 우시형 김도엽
4월 23일	**헬렌** : 임소연

♡ 특별헌금–가톨릭 자선 사업을 위하여
일시 : 4월 24일(주일) 미사 중

♡ 지난 주 부활 제대 꽃봉헌
익명 $100.- 자비로우신 모후 Pr. $50.- 이영석 $100.-

♡ 성시간 : 5월 5일(목) 저녁 8시 미사 후

♡ 청년회 소식
어버이날(5월 8일) 아침 7시, 10시 미사 전에 청년회에서 카네이션을 본당 어르신들에게 선물합니다

♡청년 미사, 주일학교 미사 안내
오늘(4월 17일)에는 청년미사, 주일학교 수업과 미사는 없습니다

♡ 상품권 판매 안내 성물방에서 한아름, 아씨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중 성가대에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1,900.- 상당의 음향기기를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 영수증 모으기 안내
* **한아름** : 4월 한아름 영수증 마감일 : 5월 15일(주일)
한아름 엘킨스 팍 지점과 새로 오픈한 필라델피아 지점은 한아름 스마트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은 교회 수익금으로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한아름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만 필요합니다

* **아씨** : 물건 구입시 성당 번호 "89020"이나 "**성당이나 가톨릭**"이라고 말하면 영수증에 대한 수익금이 성당으로 적립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식당 영수증 모으기 안내
본가 , 서라벌, 토담골, 뮤타, 코리아 가든, 종가집, 고향산천, 소 코리안 그릴, 고기 BBQ, 수라 식당 영수증의 3% 수익이 됩니다.
* 위의 식당 명단에 이름이 없는곳은 영수증 수익금을 주지 않습니다

김승원 카이로프랙틱 척추신경의료원
Ambler (215)641-9808
Cheltenham (215)276-1976

경희 한의원
545 N. Bethlehem Pike
Lower Gwynedd PA 19002
(Tel) 215-224-2070
www.kyungheepa.com

본가
한국 전통 음식
(Tel) 267-645-3552 (아씨 맞은편)
구역회, 단체 모임 환영

김홍길 회계사무소
(215) 635-7536

빛나 전기
김영찬 (Tel) 215-783-2528
Licensed Electric Contractor PA, NJ

장우균 CPA 공인회계사
(215)635-6463
wchangcpa@gmail.com

그레이스 김 보험
오바마 케어
메디 케어
610–275–6321

한미 종합 건축
Licenced, Insured since 1990
215-327-8205
215-767-6111

장례에 관한 모든것
김기호 예의원
KIM FUNERAL HOME
215.424.0404

State Farm
비비안 리 종합보험
(215) 628-4323

공인회계사 CPA
박희중.고현우
(215) 782 - 2121

빅센트릭 가전제품
창고판매 => 시간, $$ 최대 절감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 –
무료배달, 판매세 없음, 무이자 할부
443.250.8094/sales@BigCentric.com
151 Edgemoor Rd, Wilmington, DE